



한국은행, '경제 마스터즈 토론회' 개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인 '한은 경제 마스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일 한은 경제 마스터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한은 경제 마스터즈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마련한 참여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참여인원을 10% 이상 확대하고 자체 토론회, 지역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참가 대학생들은 4개 조로 나뉘어 통화정책 및 일반경제 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은 논리, 적극성, 준비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을 선정하고 기념품을 증정했다.

참가 대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다른 참가자와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최근 금융경제 현안 및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빛고을 50+센터, 취업코칭서비스 운영

광주시 빛고을 50+센터(센터장 정찬기)는 장년층 재취업과 신규취업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해 '50+취업코칭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

교육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작성법과 면접전략, 상담 등이며 노사발전재단과 경영자 총협회 중장년 내일센터, 전직지원 및 교육 서비스 전문기업인 인지어스 코리아와 재취업 전문지원 교육을 진행한다.

50+상담의 날과 센터에 설치된 AI 면접기로 면접 실전 체험도 진행한다. 기간은 10월까지 5회이며 만 45세~64세 광주 장년층 시민이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정찬기 빛고을 50+센터장은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장년층들을 대상으로 신규·재취업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참여 희망자는 빛고을 50+ 포탈(www.gj50plus.or.kr), 사무실(062-228-5050)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제33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개최

광주 동구가 전국 7개 자치구 단체장들과 함께 인구 유출 등 공동현안을 나눴다. (사진)

동구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청에서 열린 '제33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를 갖고 전국 7개 자치구 단체장들이 공동현안 돌파구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7개 중심 자치구가 겪는 구도심 공동화, 상권 침체, 인구 유출 등 공동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임택 구청장은 지역별 우수 정책사례에서 '인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인문자원 기록화'를 대표 우수사례로 발표하면서 구도심이 보유한 자원을 재발견하고 나눔·연대의 공동체 회복을 실현하는 '인문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알렸다. 더불어 문화관광 활성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협의회에 참석하신 단체장님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상생하는 구청장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동신대, 고향사랑 기부금 나누시 전달

동신대학교가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활동을 통해 1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나주시에 전달했다. (사진)

동신대는 교직원들이 1차기금 1500만원을 모아 나주시에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동신대는 지역과 상생하는 공유대학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활동을 펼쳤다. 이주희 총장이 500만원을 쾌척했으며 교직원 100여명이 동참했다. 동신대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교직원이 늘고 있어 2차 기부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지역사회와 대학, 기업, 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신대는 지자체, 의회, 지역 기관, 기업 등과 공동으로 최근 에너지밸리 오픈이노베이션, 지역 상생 정책 포럼, 상상포럼, 디지털 노마드 인(in) 나주 행사를 추진하는 등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나주=조대봉 기자



호남대, 맞춤형 마음케어 집단상담 참여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학과장 이희승)는 지난 2일 교내 국제회의실에서 학생상담센터(센터장 김미례)에서 진행한 학과 맞춤형 마음케어 집단상담 '마음과 마음을 잇다'에 참여했다. (사진)

4일 호남대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마인드케어, 스트레스 관리, 휴식, 자기 탐구를 통한 감정 치유 기법에 초점을 맞춘 활동형 그룹 상담 세션을 운영했다. 학우들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고취시키고 학교생활과 학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소속감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의 이완을 통한 힐링 요법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자기 주도적인 감정 표현과 마인드케어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호텔경영학과는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지도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성취도 향상과 전반적인 학교생활 경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노병하 기자



대한적십자사, 집중호우 재난구호 종합훈련 '성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직원 및 봉사원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년 집중호우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2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대강당에서 강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로 인한 저지대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의 침수 상황을 가정해 재난구호 종합훈련이 진행됐다.

이번 훈련으로 직원 및 봉사원들은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대규모 이재민 집단 구호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맡은 바 임무를 숙지하는 등 역량을 강화했다. 또 토론기반훈련을 통해 상황접수 전파 및 보고, 상황 판단회의 실시,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설치·운영, 재난대응 합동 구호 및 복구 활동도 추진했다.

이 밖에도 참여자들은 △인명구조 △구호물자 수송 △자원봉사자 모집 △이재민 구호소 운영 △응급처치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 등 실전과 같은 구호활동을 펼쳤다. 강주비 기자



동강대 간호학과 RCY 주축 헌혈 캠페인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최근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4일 동강대에 따르면 간호학과 RCY(Red Cross Youth 청소년적십자) 동아리(회장 이은지)는 지난 1일 교내 교수연구동과 인문사회관 등 2곳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하는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올 4월 헌혈캠페인을 진행한 동강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4차례 헌혈행사를 열고 연말에는 헌혈증을 기부하고 있다.

RCY를 지도하는 허숙 교수는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동참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북부소방, 등굣길 안전캠페인 진행

광주 북부소방서는 지난 2일 북구 문화초등학교에서 한국 119청소년단과 함께 '소방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등굣길 안전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한국119청소년단원으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의식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한국119청소년단은 안전을 중시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목표로 1963년 최초 창단됐다.

북부소방서에서 지원하는 한국119청소년단은 문화초등학교 등 4개대 103명으로 조직돼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 등 여러 소방안전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정성현 기자



목포교도소, 순국선열 추모 현충공원 충혼탑 참배

목포교도소(소장 서호성)는 호국보훈의 달과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목포 현충공원을 방문해 충혼탑을 참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이번 참배에는 목포교도소장 등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했다.

서호성 소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기리고 6·25 전쟁 당시 수용자를 보호, 기관 방어 등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교도관들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참배했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